



가족과 함께하는 좋은 아버지 되는 법

- 편집실 -

한국사회에서 아버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한 가정의 책임자로 특히,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일 것이다. 처음부터 큰 것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조금씩 생각을 바꾸고 작은 습관부터 실천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한 직업인 되기

성공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생각해보자. 만약 성공을 단순히 출세에 둔다면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은 힘든 일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도 가족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는 좋은 아버지 혹은 좋은 남편으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될 것이다.

자녀에게 단순히 출세가 곧 성공이라는 것을 가

르치기보다 자신에게 맞는 일은 찾아 열심히 그 일을 수행해 나가도록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이에 좋은 아버지로서 자신이 보보기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속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자

여전히 유교적인 성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권위적인 아버지의 틀을 벗어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렇듯 권위라는 것은 자신의 속마음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삼고 있으며 이에 아버지의 권위가 서게 된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시대가 많이 변하여 아버지의 권위적인 태도는 가족에 대한 감사와 애정에 대해서 표현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전통적인 사고방식과 행동으로는 가족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힘든 것은 당연한 일이다. 가족들은 아버지가 더 많은 사랑을 표현하기를 바라고 있다.

대화가 답이다

우리나라의 아버지들은 과묵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인지 가족과의 대화를 자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선진국의 아버지들은 아내를 물론 자녀들과도 많은 대화를 나눈다. 사춘기 무렵에는 오히려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더 좋은 대화 상대가 되어 준다고 한다. 아무리 많은 일 때문에 지치고 힘들더라도 하루에 30분이라도 시간을 정해 대화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대화 또한 시작하는 것이 어렵지 시간이 지나면 서로 이해하게 되고 친밀감이 형성되는 것을 물론 어느새 좋은 아버지가 되어가는 자신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자

말은 한번 지나가면 의미가 퇴색되지만 글은 더 오래 기억되고 더 깊은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의사소통 방식이다. 한번 더 생각하고 쓰게 되기 때문에 진실된 내용을 전하는데 더할 나위없이 좋은 방법이다. 한달에 한번 정도 한달을 정리하고 새달을

맞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메일을 사용하여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다.

내용이 많지 않더라도 힘과 용기가 되어주는 몇 줄의 진심어린 편지가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느낌이 공유되도록 책을 읽자

시대가 급하게 변하고 있는 지금 자녀들과 이야기 거리를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에 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소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와 함께 책을 읽고 의견을 나누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서로의 다른 견해차이도 발견하고 서로의 느낌들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책을 읽는 것이 필요하다. 취학 전의 아동들에게 아버지가 읽어주는 책은 평생에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될 것이다.

가족과 함께 배우기

진정한 가르침은 배움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다.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다.

가족이 함께 여행을 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함께 해 나간다면 가족간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많아지고 가족간의 정은 새롭게 싹트게 될 것이다.

여행지도 함께 정하면서 의견을 나누고 지역의 역사, 유물, 환경 등에 관한 자료도 찾아보고 여행지에 대해서 숙지를 한 뒤 함께 다녀오게 된다면 평생 잊혀지지 않을 좋은 추억이 되고 가족간의 유대감은 더욱 깊게 형성될 것이다. 교육적으로도 의미있는 음악회나 미술 전시물 관람 등 문화생활을 가족이 함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